

운호(雲湖) 임정주(任靖周)의 자필 서간문에 관한 연구*

A Study of Unho Im Jeong-ju's Newly Discovered Handwritten Letter

강 순 애 (Kang, Soon-Ae)**

◁ 목 차 ▷

- | | |
|---|---------------|
| 1. 서 론 | 3. 자필 서간문의 분석 |
| 2. 『운호집(雲湖集)』의 서간문에
수록된 인물들의 학문 연원과 교류
내용 | 3.1 서지적 분석 |
| 2.1 학문 연원 | 3.2 내용적 분석 |
| 2.2 교류 내용 | 4. 결 론 |
| | <참고문헌> |

< 초 록 >

이 글은 새로 발견된 운호(雲湖) 임정주(任靖周)의 자필 서간문을 대상으로 『운호집(雲湖集)』의 서간문에 수록된 인물들의 학문 연원과 교류 내용 및 자필 서간문의 서지적·내용적 측면을 연구한 것이다. 운호(雲湖) 임정주(任靖周, 1727~1796)는 조선조 후기 영·정조 시기의 대표적인 주기와 성리학자이다. 그의 문집은 『운호집(雲湖集)』 6권 3책인데, 그중 권1-2에는 24명의 서간문 45편이 실려 있다. 이 서간문에 수록된 인물들의 학문 연원은 주로 율곡 이이, 사계 김장생, 우암 송시열, 도암 이재의 학통을 이었고, 서간의 주제는 성리학토론, 학문, 예(禮), 문집편찬, 논 의 등에 대한 47건이 다루어졌으며, 성리학토론 중에 몇 가지 매우 중요한 논의들이 있었고, 녹문 임성주의 문집편찬에 관한 기록도 들어 있었다.

임정주의 자필 서간문은 『운호집』에 수록되지 않았으며, 임성주의 『녹문선생문집(鹿門先生文集)』의 편찬과 관련된 새로운 기록들이 들어 있다. 이 서간문의 크기는 34.2 x 57.8cm이며, 본문의 전체 글자수는 511자이다. 상대방과 관련된 부분에는 존경을 표시하기 위해 공격(空格)을 두고 있다. 이 서간문 글씨체의 특징은 첫째, 전형적인 안진경의 행초서체와 해서체(楷書體)의 필획의 규범을 벗어나지 않는 형태가 있다. 둘째, 운호가 독특한 운필법(運筆法)을 세련되게 휘두른 글자들이 있는데, 초서에서 혼란이 올 수 있는 한자 부수들의 획의 모양을 다르게 표현하거나, 책받침변 ‘ㄷ’과 같은 부수에서 파임을 과격적으로 표시하거나, 여러 세대에 걸쳐 답습된 글씨체를 독특한 서법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셋째, 운호는 초서의 연서법에 있어서 두 글자, 세 글자, 네 글자를 연결해가면서 수려하고 부드러운 초서체의 특징을 잘 살려내고 있다.

이 글은 내용의 전개상 7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글은 임정주가 63세이던 정조 13년(1789)부터 69세인 정조 19년(1795)까지 청산(靑山) 현감으로 재직할 때 『녹문선생문집』의 편찬과 관련된 내용에 기반하고 있다. 그는 과중한 업무와 약화된 건강으로 인해 국가에서 임명한 언관(言官)과 낭청(郎廳)의 일도 거절하고, 임성주 문집의 편찬 및 교정에 관한 일을 김상진에게 부탁하였다. 그는 친구와 함께 학문을 연구하고 모임을 결성하고 싶은 소망을 잘 표현하였다. 그는 친구를 모임에 초대하면서 아직 교정을 보지 못한 일부 원고와 형의 행장 초안에 대한 편집과 교정을 부탁하고 있다.

* 본 연구는 2015년도 한성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과제임.

본 연구는 서지학회 추계학술발표회(2014. 10. 15)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하여 보완한 것임.

**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 교수(h4085@hansung.ac.kr)

접수일: 2015년 3월 8일 최초심사일: 2015년 3월 12일 심사완료일: 2015년 3월 24일

이 연구는 향후 민간기록의 연구는 물론 서지학, 기록관리학, 역사학, 국어학계에 가장 기본적인 연구성과로 활용될 것이다.

要語: 운호, 임정주, 자필 서간문, 『운호집(雲湖集)』, 운호의 운필법

<ABSTRACT>

This paper studies Unho Im Jeong-ju's newly discovered handwritten letter by looking over the academic origins and exchange information of the figures contained in letter works of *unhojib* and examining the bibliography and content of handwritten letter. Unho Im Jeong-ju (任靖周, 1727~1796) was a neo-Confucian spirit philosopher in Yeongjo's and Jeongjo's reign of Joseon. His anthology is *unhojip* 6 volumes 3 books, of which vol. 1-2 are listed 45 letter works written by 24 authors. Their's academic origins of the characters contained in this letter works lay in the Yulgok Yi Yi, Sagye Kim Jang-saeng, Wooam Song Si-yeol, and Doam Yi Jae faction's branch of spirit philosophy of neo-Confucianism. 45 letter works' topics are 47 cases Confucianism discussion, disciplines, etiquettes, discussions, etc. there were some very important arguments during the Confucian discussion, it was also recorded for the compilation of Writings on Nokmun Im Seong-ju.

Im Jeong-ju's handwritten letter has not been included in the *unhojib*, which contains new records related to the compilation of the Collected Works of Nokmun (*Nokmunseonsaengmunjib*). The size of this letter is 34.2 x 57.8 cm, the total number of characters of the text is 511 characters. The part relating to the other party can leave a space of one character (gonggyeok, 空格) to show respect.

Features of the script of the letter is as follows: First, there are forms without departing from the norms of typical Stroke in a semi-cursive and cursive style (行草書體) and the square style (楷書體) of An Jin-kyeong. Second, there are characters who Unho drive a stylishly and unique penmanship; the appearance of the stroke the incidental characters that confusion may come from the cursive style is represented differently, it displays a scooped hollow with unconventional in *chaekbatchimbeon* (‘ㄷ’, one of incidental characters), and represents the unique calligraphy style that followed several generations. Third, Unho skillfully revivies graceful and elegant characteristics going to connect two letters, three letters, and four letters in letters written by connecting of the cursive style.

The writing can be divided into 7 paragraphs according to the content development. This article is based on information related to the compilation of *Nokmunseonsaengmunjib* when Im Jeong-ju was chief of Chongsan County from the thirteenth(1789) to nineteenth year (1795) of Jeongjo's reign. He refused work of eongwan (言官) and nangcheong (郎廳) appointed by the country due to the deteriorating health and workload, and was asked for the compilation and correction of Im Seong-ju Writings to Kim Sang-jin. He has expressed a desire to study hard with friends and organize a meeting well. He invited his friends to the meeting, while at the same time was asked to editing and proofreading for Im Seong-ju' haengjang (行狀, a brief history of life) and some manuscripts.

This study will be used in the basic future studies of private records as well as in those of bibliography, record management, history and Korean language.

Key words: Unho, Im Jeong-ju, handwritten letter, *unhojib*, Unho's penmanship

1. 서론

운호(雲湖) 임정주(任靖周, 1727~1796)는 조선조 후기 영·정조시기의 대표적인 주기와 성리학자이다. 그는 조선조 6대 성리학자로 불리는 형인 임성주(任聖周)의 주기학과 학맥을 계승하여 심(心)의 도덕 실천 능력을 밝히는 철학자였고, 세자(뒤의 정조)를 보도하는 경연관의 지위에 있으면서 진취적인 경제관을 가졌으며 청산현감(靑山縣監)으로 있는 동안 스스로 제작한 목활자를 만들어 그의 아버지 임적(任適, 1685~1728)의 『노은집(老隱集)』을 비롯하여 둘째 형인 임성주(任聖周, 1711~1788)의 『녹문선생문집(鹿門先生文集)』, 셋째 형인 임경주(任敬周, 1718~1745)의 『청천자고(靑川子稿)』, 그의 누이인 임윤지당의 『윤지당유고(允摯堂遺稿)』를 간행하였다.

임정주의 서간은 그의 문집인 『운호집(雲湖集)』 권1-2에 24명의 45편이 실려 있다. 이들 서간문들은 임정주와 관련된 인물들의 학문 연원과 교류 내용을 다루고 있다. 교류 내용에는 성리학 토론, 학문, 예(禮), 문집편찬, 논의 등의 중요하고 상세한 정보들이 들어 있다.

이번에 소개하는 자필 서간문은 그의 문집인 『운호집』에 실려 있지 않다. 임정주가 정조 15년(1791) 청산현감(靑山縣監)으로 있을 때 그의 형인 임성주의 『녹문선생문집』을 편찬하면서 여러 사람과 상의하여 일을 진행하였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이 실려 있으므로 기존의 문헌 속에 들어 있는 내용을 보충하여 새로운 사실들을 밝힐 수 있다. 또한 임정주가 자필로 쓴 서간문이어서 글씨체는 안진경의 행·초서체로 바탕으로 한 달필의 서체로 서예 분야에서도 완미할만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현재까지 운호 임정주의 연구는 김현(1993)의 “雲湖 任靖周의 理氣心性論,”과 강순애(2014)의 “『윤지당유고』 편찬·간행과 목활자의 조성 및 서지적 특징에 관한 연구.”가 있을 뿐이다.

필자는 새로 발견된 운호(雲湖) 임정주(任靖周)의 자필 서간문을 중심으로 『운호집』의 서간문에 수록된 인물들의 학문 연원과 교류 내용을 살펴보고, 이어

자필 서간문의 서지적 분석 및 내용 분석의 순서로 진행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향후 민간기록의 연구는 물론 서지학, 기록관리학, 역사학, 국어학계에 가장 기본적인 연구 성과로 활용될 것이다.

2. 『운호집(雲湖集)』의 서간문에 수록된 인물들의 학문 연원과 교류 내용

『운호집』은 운호(雲湖) 임정주(任靖周, 1727~1796)¹⁾ 문집이다. 그의 문집은 순조 17년(1817)에 그의 아들 임걸(任杰)이 편찬하고, 임성주의 아들 임조(任照)가 청산현감 재직 시에 간행한 6권 3책이다. 문집은 서문이 없고 권두에 총목차가 있으며, 각 책마다 앞부분에 상세목차가 있다. 권1-2에 서(書) 45편, 권 3-4에 녹(錄) 2편, 잡저 4편, 권5에 설(說) 1편, 잡저 4편, 기(記) 3편, 발(跋) 4편, 고문 3편, 제문 3편, 권6에 묘지명 2편, 행장 1편, 유사 2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끝에는 족질 임노(任魯)가 지은 발문이 붙어 있다. 이 장에서는 『운호집』 권1-2의 서간문에 수록된 인물들의 학문 연원과 교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2.1 학문 연원

『운호집』 권1-2에 서(書) 45편이 실려 있는데, 임정주가 교류한 인물들은 김지행(金砥行, 1716~1774), 송시연(宋時淵), 김희(金熹, 1729~1800), 박윤원(朴胤源, 1734~1799), 이상재(李象載), 송기정(宋基鼎, 1771~?), 임노(任魯, 1755~1828), 송명흠(宋明欽, 1705~1768), 김상진(金相進, 1736~1811), 임욱(任焞, 1736~?), 곤암(困庵) 김상무(金相戊, ?~1786), 이민보(李敏輔, 1720~1799), 송치연(宋致淵), 이홍재(李洪載, 1727~1794), 송수연(宋守淵, 1745~?), 이광

1) 운호(雲湖) 임정주(任靖周, 1727~1796)의 생애와 학문에 대해서는 강순애, “『윤지당유고』 편찬·간행과 목활자의 조성 및 서지적 특징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59집(2014), 46-48에 상세히 연구되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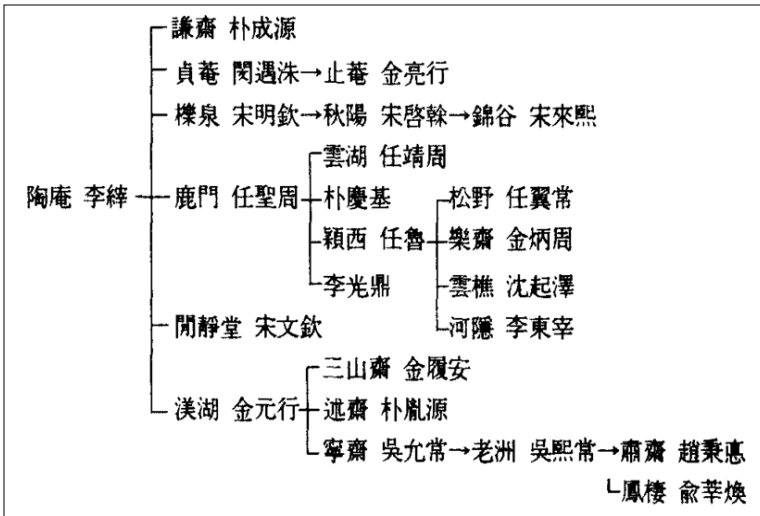
실(李光實), 이광주(李光胄), 김기서(金基胥), 송계간(宋啓幹), 임성주(任聖周, 1711~1788), 임창주(任昌周), 임묵(任默), 임(任) 형제(이름은 모름), 임지상(任持常) 등 24명이다.

이들 24명은 대부분 운호 임정주의 가족과 친척 및 친구들이며 기호학과(畿湖學派)의 주기학맥의 인물들이다. 이들은 학문으로 깊게 맺어져 있으면서 집안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였고, 각자 그들의 스승이나 부모 및 형제들의 문집의 편찬, 교정 및 간행에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었다.

이들 학파의 연원은 울곡(栗谷) 이이(李珥)에서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으로 이어지는데 사계의 문인으로는 조암(釣巖) 이시백(李時白), 동춘당(同春堂) 송준길(宋浚吉),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구봉(龜峯) 송익필(宋翼弼) 등이 있다. 그중 송시열의 학문은 철저히 주희(朱熹)의 학설을 바탕으로 하되, 조광조 → 이이 → 김장생으로 이어지는 서인 학통의 도통을 이은 것이기도 하였다. 송시열의 제자중 도암(陶庵) 이재(李穡)는 호락논쟁(湖洛論爭)에서는 낙론의 거두인 이간(李柬)의 학설을 계승해 호론인 한원진(韓元震) 등의 심성설(心性說)을 반박하는 입장에 섰다.

이재(李穡)의 제자들은 겸재(謙齋) 박성원(朴性源), 정암(貞菴) 민우수(閔遇洙), 역천(櫟泉) 송명흠(宋明欽), 녹문(鹿門) 임성주(任聖周), 한정당(閒靜堂) 송문흠(宋文欽), 미호(溟湖) 김원행(金元行)이다. 이중 운호 임정주의 형인 임성주의 제자들은 동생인 임운지당(任允摯堂)과 운호(雲湖) 임정주(任靖周, 1727~1796)가 있고, 조카인 영서(穎西) 임노(任魯, 1755~1828)와 그의 제자들인 송야(松野) 임익상(任翼常), 악재(樂齋) 김병주(金炳周), 운초(雲樵) 심기택(沈起澤), 하은(河隱) 이동재(李東宰)가 있으며, 이광정(李光鼎)과 박경기(朴慶基)가 있다. 도암 이재와 그의 학문 연원들을 <그림 1>²⁾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 鄭炳連, “녹문 임성주의 생애와 그 학술 경향,” 『퇴계학보』 101권(1999), 123의 <도식 6>을 인용함.



<그림 1> 도암 이재와 그의 학문 연원

위의 <그림 1>에 나오는 사람들 중 운호 임정주와 서간을 교류한 사람들을 보면, 역천(櫟泉) 송명흠(宋明欽)과 그의 제자 추양(秋陽) 송계간(宋啓幹), 녹문(鹿門) 임성주(任聖周), 영서(穎西) 임노(任魯), 미호(漢湖) 김원행(金元行)의 제자 박윤원(朴胤源)이 보인다.

첫째, 송명흠³⁾은 본관은 은진(恩津). 자는 회가(晦可), 호는 역천(櫟泉). 아버지

3) 한국학중앙연구원(201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검색일자 2015. 3. 15.]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30808>

송명흠(宋明欽, 1705~1768)은 조선 후기의 문신·학자. 사회를 피하여 낙향하는 아버지를 따라 옥천·도곡(塗谷)·송촌(宋村) 등지로 옮겨 다니며 살았다. 뒤에 학행으로 추천되어 충청도도사·지평·장령 등이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으며, 영조 30년(1754) 특별히 서연관(書筵官)을 제수하여 별유(別諭)를 내리기까지 하였으나 글을 올려 사양하였다. 1755년 옥과현감(玉果縣監)이 되었으나 모친상을 당하여 사직하였다. 3년 상을 마친 뒤, 집의·승지·참의 등의 벼슬이 주어졌으나 모두 글을 올려 거절하였다. 만년에 정국이 다소 안정되면서 1764년 부호군에 임명되고 찬선(贊善)으로 경연관이 되어 정치문제를 논의하는 가운데 영조의 비위에 거슬리는 발언을 하여 파직되었다. 그는 자신의 학문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재·민우수(閔遇洙)·송사능(宋士能)·김양행(金亮行)·신소(申韶) 등과 서신으로 학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문원(文元)이다.

는 요좌(堯佐)이며, 이재(李緯)의 문인이다. 임성주와 임정주의 이종사촌형으로 특히 녹문 임성주와 가까이 지냈다. 그의 아들 송시연(宋時淵)이 임정주와 가까웠으며, 임성주가 죽자 『녹문선생문집』의 문집 편찬에 깊이 관여하였다. 송계간(1764~1841)⁴⁾은 송시연(宋時淵)⁵⁾의 아들이자 송명흠의 손자로 할아버지의 학문을 이었다.

둘째, 임성주(任聖周)는 동생 정주(靖周)·경주(敬周)와 함께 낙론(洛論)의 대표자인 이재(李緯)에게 배웠다. 송명흠(宋明欽), 송문흠(宋文欽), 김원행(金元行), 송능상(宋能相) 등과 교류했고, 그의 심성일치·성즉기(性卽氣)·심즉기(心卽氣)의 학설은 한국 유학사상 독특한 위치를 갖는 것으로, 그는 서경덕(徐敬德), 이이(李珥), 이황(李滉), 기정진(奇正鎭), 이진상(李震相)과 함께 조선 성리학 6대가의 한 사람으로 일컬어진다. 영서 임노(任魯, 1755~1828)⁶⁾는 본관은

저서로는 『역천집』이 있다.

- 4) 한국학중앙연구원(201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검색일자 2015. 3. 15.]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30631>>

송계간(宋啓幹)은 본관은 은진(恩津), 자는 직경(直卿), 호는 추양(秋陽). 준길(浚吉)의 후손이다. 아버지는 증좌찬성 시연(時淵)이며 유년시절에 할아버지 명흠(明欽)에게 수학하였다. 정조 20년(1796)에 우의정 윤시동(尹蓍東)이 그의 학행(學行)을 천거하여 부사용(副司勇)에 제수되었고, 그 뒤 대사헌 이직보(李直輔), 홍문관교리 이지연(李止淵), 영의정 남공철(南公轍) 등의 추천으로 형조참의·성균관좌주(成均館祭酒)·사헌부대사헌 등의 요직에 임명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시호는 문경(文敬)이며, 저서로 『추양유고』가 있다.

- 5) 송시연(宋時淵)은 송명흠(宋明欽, 1705~1768)의 아들이다. 그의 이력에 대해 문헌을 통해 참고해 보면, 『日省錄』에 의하면, 영조 52년(1776) 12월 29일 건원릉참봉(健元陵參奉)이 되었고, 정조 6년(1782) 12월 29일 동몽교관(童蒙教官)이 되었다. 『內閣日曆』에 의하면, 정조 7년(1783) 1월 10일 동몽교관의 자격으로 『諭中外大小臣庶綸音』을 반사 받았고, 정조 23년(1799) 10월 3일 『御定新印雅頌』을 반사 받았다. 『朝鮮王朝實錄』에 의하면, 정조 23년(1799) 4월 20일에 원자공의 요속이 되었다. 순조 5년(1805)에 성주(星州)목사로 부임하였고, 이듬해인 순조 6년(1806)에는 그의 아버지 송명흠의 문집인 『櫟泉集』을 편찬·간행하였다.
- 6) 디지털전문화대전. [검색일자 2015. 3. 10.] <http://jincheon.grandculture.net/Contents?local=jincheon&data Type=01&contents_id=GC02700665>
임노(任魯, 1755~1828). 판서 임방(任瑋)의 현손으로 아버지는 사간원대사간 임중주(任宗周)의 아들이다. 순조 9년(1809)에 제용감부봉사(濟用監副奉事)로 다시 관직에 나갔으며, 상서원직장, 사복시주부, 의금부도사, 경모궁령(景慕宮令)을 거쳐, 외직으로 신령현감·충원현감[충원은 지금의 충주]을 역임하였다.

풍천(豊川), 자는 득여(得汝), 호는 영서거사(穎西居士)이다. 임정주의 집안 조카이며, 학문적으로는 주기론(主氣論)을 주장한 임성주(任聖周)를 스승으로 모셨다.

셋째, 박윤원(朴胤源, 1734~1799)⁷⁾은 본관은 반남(潘南). 자는 영숙(永叔), 호는 근재(近齋)이다. 김원행(金元行)과 김지행(金砥行)의 문하에 들어가 학문을 깊이 연구하였다. 그는 성리설에 대해 절충적 입장에서 학설을 전개하였다. 심설(心說)에서 심(心)은 기(氣)라고 하여 주기적 입장을 취하였다. 이기설(理氣說)에서는 ‘이가 기에 앞서 존재한다(理在氣先).’고 생각해 주리적 경향을 보였다. 또한 예학에 관해서도 깊은 연구와 해박한 지식이 있었다. 그의 문인으로는 홍직필을 비롯, 이재의(李載毅), 정도일(丁道一), 어석중(魚錫中) 등 다수가 있다.

2.2 교류 내용

『운호집』 권1-2의 45편 서간문에 수록된 24명 인물들의 교류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서간문 교류자의 이름 및 생몰년, 편수, 제목, 주제 및 서간 내용 등의 세부 내용을 <표 1>로 작성하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 한국학중앙연구원(201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검색일자 2015. 3. 15.]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21018>

박윤원(朴胤源, 1734~1799)은 1792년 학행으로 천거되어 선공감역(繕工監役)에 임명되었으나 사퇴하였고, 1798년 원자(元子)를 위하여 강학청(講學廳)이 설치되자 서연관(書筵官)에 임명되었으나 역시 거절하였으며 학문 연구에만 전념하였다. 특히 그는 당시 소개되던 서학(西學)의 폐해가 도교나 불교보다도 크다고 하여 배척하고, 오직 경전의 훈고와 성리학에 몰두하였다. 김창협(金昌協)·이재(李穡)·김원행의 학통을 계승한 적전(嫡傳)으로, 다시 문하의 홍직필(洪直弼)에게 전수해 신응조(申應朝)·임헌희(任憲晦)·조병덕(趙秉德) 등으로 이어지는 조선 후기 성리학의 중요한 학파를 형성하였다. 동문의 오윤상(吳允常) 등과는 많은 학문적 논란과 교류가 있었다. 죽은 뒤에 대사헌에 추증되었다. 저서로 『근재집』과 『근재예설(近齋禮說)』이 있다.

운호(雲湖) 임정주(任靖周)의 자필 서간문에 관한 연구

<표 1> 『운호집』 권1-2의 45편 서간교류자의 이름 및 생몰년, 편수, 제목, 주제 및 서간 내용

번호	이름 및 생몰년	편수	서간제목	주제 및 내용
1)	김지행(金砥行, 1716~1774)	6	『여김유도(與金幼道)』 (1770)	성리학: '格物'의 '物'이 '心'에 이른다는 내용을 비판함.
			『여김유도(與金幼道)』	성리학: '至善'과 '格物'을 '心到'와 '到心'으로 해석한 내용을 비판함.
			『답김유도(答金幼道)』	성리학: 자신의 고집만 옳다고 하는 주장에 대한 비판함.
			『답김유도(答金幼道)』	성리학: '本然之性'에 대한 박윤원(朴胤源)과 김지행의 주장은 '하나의 근원[一源]'으로 본 것에서는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함.
			『답김유도(答金幼道)』	성리학: 본연은 '하나의 근원'으로서의 성에서는 말할 수 있으나 '각각 바른[各正]' 성에서는 말할 수 없다는 김지행의 견해는 한원진의 말과 다르다고 추궁함.
			『답김유도(答金幼道)』	服制: 부친의 장례를 치른 후 조모상을 당한 경우의 복제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함.
2)	송시연(宋時淵)	4	『답송정심(答宋靜深)』 (1794)	학문: 본체의 공부가 둘이 아님을 강조하는 것임.
			『답송정심(答宋靜深)』	성리학 및 문집 편찬: 『맹자(孟子)』 『고자(告子)』 상(上) 제 3절의 '性'의 의미에 의문을 제기하고 임성주의 문집 편정(編定)을 부탁하는 내용임.
			『여송정심(與宋靜深)』	문집편찬: 『녹문선생문집(鹿門先生文集)』 권22의 『존존감기(存存龜記)』가 명의 유학자 양계(梁溪) 고반룡(高攀龍)의 수양론의 영향을 받았으니 삭제하라는 송시연의 제안에 대해 임성주가 말한 '致良知'는 양명(陽明)의 주장과 다른 것이라 해명하고, 『녹문선생문집(鹿門先生文集)』의 이민보(李敏輔)의 서(序)와 임옥(任焞)의 발(跋)에 대한 송시연의 논평이 너무 간략하여 유감스럽게 여기고 있음.
『여송정심(與宋靜深)』	성리학: 『녹문선생문집(鹿門先生文集)』에서 고반룡의 말을 인용한 권26의 『차미호신기음삼편재첩인족성심성잡영(次溪湖神氣吟三篇再疊因足成心性雜詠)』은 위대한 근원에 대해 논한 부분이 합치되어 취한 것인데 김상진(金相進)이 임성주를 양명의 일파로 몰고 가고 있다고 우려하는 내용임.			

번호	이름 및 생몰년	편수	서간제목	주제 및 내용
3)	김희(金熹, 1729~1800)	3	『여김영부희논한남당심설(與金領府熹論韓南塘心說)』 (1795)	성리학: 한원진(韓元震)의 제자인 김희에게 그 스승의 심설(心說)에 문제가 있음을 조목조목 논한 글임.
			『답김령부(答金領府)』 (1796)	성리학: 한원진의 인물성부동론(人物性不同論)은 심성을 하나로 보고 성범심부동론(聖凡心不同論)은 심성을 둘로 보았으니 문제라는 것임.
			『답김령부(答金領府)』	성리학: 『답김령부(答金領府)』는 이간(李東)은 인물성(人物性)에서는 심성을 둘로 보고, 성범심(聖凡心)에서는 심성을 하나로 본데 비해, 한원진은 인물성(人物性)에서는 심성을 하나로 보고, 성범심(聖凡心)에서는 심성을 둘로 보아 두 견해가 모순된다는 내용임.
4)	박윤원(朴胤源, 1734~1799)	3	『답박영숙(答朴永叔)』 (1775)	성리학: 『中庸』의 '不睹不聞'의 토론임.
			『답박영숙(答朴永叔)』 (1791)	성리학: '人物性同異'의 토론
			『답박영숙(答朴永叔)』 (1792)	문집편찬: 『녹문선생문집(鹿門先生文集)』의 편차와 관련하여 성설(性說)에 대해 달리 생각하는 점이 있거든 일일이 지적해 달라고 청하는 내용임.
5)	이상재(李象載)	3	『답이사함(答李士涵)』 (1786)	학문: 초학자들에게 마음의 본체를 먼저 세우라고 당부하는 글임.
			『첨답이사함변윤여술심설(添答李士涵辨尹汝述心說仍示汝述)』 (1787)	성리학: 윤여술(尹汝述)의 심설에 대한 이상재의 논변에 대해 논하고 윤여술에게도 보여주도록 한 글이다. 기질의 작용은 모두 심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체(體)는 담일(湛一)하므로, 심이 발하는 데에는 불선(不善)이 있으나 미발의 심의 본체에는 불선이 없다고 주장하는 내용임.
			『답이사함(答李士涵)』 (1789)	성리학: 『예기(禮記)』에 대한 18항목의 이상재의 질문에 답한 글임.
6)	송기정(宋基鼎, 1771~?)	3	『답송치온(答宋稴溫)』 (1788)	성리학: 『논어(論語)』의 '五十而知天命'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임.
			『답송치온(答宋稴溫)』 (1795)	학문: 태만하고 조금하지 않으며, 잊지 않고 조장하지 않는 것이 독서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하는 내용임.
			『여송치온(與宋稴溫)』 (1795)	학문: 심지(心地)를 진실하게 하는 공부에 대해 당부한 글임.

운호(雲湖) 임정주(任靖周)의 자필 서간문에 관한 연구

번호	이름 및 생몰년	편수	서간제목	주제 및 내용
7)	임노(任魯, 1755~1828)	3	『답족질로(答族姪魯)』 (1794)	학문 및 문집 편찬: 삼경(三經), 삼전(三傳), 삼례(三禮)를 읽어야 한다고 충고하면서 『낙문선생문집(鹿門先生文集)』의 인쇄를 걱정하는 글임.
			『여족질로(與族姪魯)』 (1795)	禮(정려문 건립 논의): 임노가 다스리는 고을의 사족(士族) 가운데 이유 없이 남편을 따라 죽은 여인에게는 정려를 세워줄 필요가 없으니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글임.
			『여족질로(與族姪魯)』	학문: 학문의 큰 뜻을 세우고 용맹하게 전진하여 사우(師友)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말라고 당부하는 글임.
8)	송명흠(宋明欽, 1705~1768)	2	『상이형역천송공(上姨兄櫟泉宋公)』(1760)	논의: 서로 다른 견해에 대해 의견일치를 부탁하는 내용임.
			『상이형역천(上姨兄櫟泉)』 (1765)	학문: 송명흠의 가르침대로 실천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는 내용임.
9)	김상진(金相進, 1736~1811).	2	『답김사달(答金士達)』 (1791)	성리학: 『중용(中庸)』의 『귀신장(鬼神章)』의 ‘鬼神’은 일반적으로는 ‘氣’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리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임.
			『여김사달(與金士達)』 (1795)	성리학: 『주역(周易)』 『계사전(繫辭傳)』의 ‘繼之者善’에 대한 해석은 주자의 정론(定論)을 따르는 것이 좋겠다는 글임.
10)	임욱(任焄, 1736~?)	2	『여종질육(與從姪焄)』 (1794)	제사: 임창주의 큰 아들인 종질 임욱에게 보낸 것으로 기제사 때 고조(高祖)와 고비(考妣)의 신위를 함께 모실 것인지 하나씩 모실 것인지 현손들이 미리 정해두라고 부탁하는 글임.
			『여종질육(與從姪焄)』 (1795)	제사: 밥과 갯을 신주마다 각각 차리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함께 차려야 한다는 내용임.
11)	김상무(金相茂, ?~1786)	1	『답곤암김공(答困庵金公)』	복제: 송명흠의 정식 복을 입고 벗은 뒤 2개월 동안 흰 띠를 매기로 한 내용임.
12)	이민보(李敏輔, 1720~1799)	1	『답이판서백눌(答李判書伯訥)』(1790)	성리학: 이민보는 『주자대전(朱子大全)』 별집에 나오는 ‘翁季’와 『門人錄』에 나오는 ‘翁季’는 각각 여사로(余師魯)와 그 아들, 주자와 채서산(蔡西山은 蔡元定)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등 이민보의 물음에 답하는 내용임.
13)	송치연(宋致淵)	1	『여송성중(與宋誠中)』 (1760)	문집 편차(송명흠): 송명흠의 문집 편차를 서두르라는 내용임.

번호	이름 및 생몰년	편수	서간제목	주제 및 내용
14)	이홍재(李洪載, 1727~1794)	1	『답이사심(答李士深)』(1772)	송시연의 유배 친구(伸救) 논의: 송명흥의 아들 송시연이 유배를 가자 문인들이 친구(伸救)하려 한 일에 참여해야 할지 주저한다는 내용임.
15)	송수연(宋守淵, 1745~?)	1	『여송백인(與宋伯仁)』(1795)	문집 편찬(송명흥): 당시 황주목사로 있던 송수연에게 송명흥의 문집을 황주에서 맡아 간행하기를 권하는 글임.
16)	이광실(李光實)	1	『여이사빈(與李士彬)』(1761)	학문: 경전을 공부하고 도움이 되는 친구를 사귀어 도심(道心)을 키우라고 충고하는 글임.
17)	이광주(李光胄)	1	『답이백경(答李伯擎)』	성리학: 『답이백경(答李伯擎)』은 『맹자집주(孟子集註)』에 대한 19항목의 질문에 답한 것임.
18)	김기서(金基胥)	1	『답김정택(答金正宅)』(1786)	성리학: 뜻을 세우는 것도 병을 다스리는 것도 모두 경(敬)에 있음을 강조한 글임.
19)	송계간(宋啓幹)	1	『답송직경(答宋直卿)』(1796)	복제: 출계(出系)한 며느리는 종자부(從子婦)가 남편의 백숙부모(伯叔父母)의 복에 입는 대공(大功) 복을 입어야 한다는 주장임.
20)	임성주(任聖周)	1	『상중씨논부인수제(上仲氏論婦人首制)』(1771)	禮(부인의 머리모양): 부인의 머리모양을 우리 집안부터 고례(古禮)에 따르고 검소하게 시행하고 사우(師友)들에게도 권하여 중화(中華)의 복식으로 바꾸자고 하는 글임.
21)	임창주(任昌周)	1	『상칠형(上七兄)』(1786)	학문: 임정주가 그의 숙부 임일(任逸)의 둘째 아들인 임창주에게 올린 편지로 자손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 천직이라는 글임.
22)	임묵(任默)	1	『여종질묵(與從姪默)』(1788)	문집 편찬: 임정주가 백부 임선(任選)의 둘째 아들 임면주(任冕周)의 아들인 임묵에게 임성주의 죽음을 슬퍼하고 유집(遺集)을 편차하기 위해서 유사(遺事)나 다른 문건을 모은다는 사실을 친척들에게 알리라는 취지의 글임.
23)	임(任) 형제 (이름은 모름)	1	『답족질주서(答族姪注書)』	학문: 『대학(大學)』과 『논어(論語)』를 공부하면서 주자의 『주자대전(朱子大全)』은 너무 방대하니 먼저 『절작통편(節酌通編)』을 읽도록 권하는 글임.
24)	임지상(任持常)	1	『답족손지상(答族孫持常)』(1789)	성리학: 『대학(大學)』의 '虛靈'과 '物格知至'에 대한 물음에 대답한 글임.

위 <표 1>의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서간문 45편 중 편수가 많은 순서대로 보면, 김지행(金砥行) 6편, 송시연(宋

時淵) 4편, 김희(金熹), 박운원(朴胤源), 이상재(李象載), 송기정(宋基鼎), 임노(任魯) 등 5명은 각 3편, 송명흠(宋明欽), 김상진(金相進), 임육(任燾) 등 3명은 각 2편, 김상무(金相戊), 이민보(李敏輔), 송치연(宋致淵), 이홍재(李洪載), 송수연(宋守淵), 이광실(李光實), 이광주(李光胄), 김기서(金基胥), 송계간(宋啓幹), 임성주(任聖周), 임창주(任昌周), 임묵(任默), 임(任) 형제(이름은 모름), 임지상(任持常) 등 14명은 각 1편이다.

2) 운호 임정주와 이들 간의 서간 교류의 주제는 하나의 주제를 다룬 것이 대부분이고, 간혹 두 개의 주제를 다룬 것도 있다. 이들을 몇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보면, 성리학 토론 21건, 학문 10건, 예(禮)와 관련하여 복제(服制) 3건, 제사(祭祀) 2건, 정려문(旌閭門) 건립 1건, 부인의 머리모양 1건 등 7건, 문집편차와 관련하여 『녹문선생문집(鹿門先生文集)』의 편찬 5건, 송문흠의 문집 편찬 1건, 송명흠의 문집편찬 1건으로 7건, 논의 2건의 총 47건이다.

3) 성리학 토론의 21건 중에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실려 있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김지행(金砥行)⁸⁾과는 6편의 서간문 중 5편이 성리학 토론으로 이루어졌다. ‘格物’의 ‘物’이 心에 이른다라는 내용과 ‘至善’과 ‘格物’을 ‘心到’와 ‘到心’으로 해석한 내용을 비판하였고, ‘本然之性’에 대한 박운원(朴胤源)과 김지행의 주장은 ‘하나의 근원[一源]’으로 본 것에서는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하였으며, 특히 본연(本然)은 ‘하나의 근원’으로서의 성에서는 말할 수 있으나 ‘각각 바른[各正]’ 성에서는 말할 수 없다는 김지행의 견해는 한원진의 말과 다르다고 추궁하고 있다.

8) 네이버지식백과. [검색일자 2015. 3. 10.]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EF%A4%8A%E7%A0%A5%E8%A1%8C&sm=top_h ty&fbm=0&ie=utf8>

김지행(金砥行, 1716~1774)은 자는 유도(幼道), 호는 밀암(密庵). 본관은 안동이다. 어려서 윤병계(尹屏溪)에게 글을 배웠고 일찍이 과거 불 뜻을 버리고 공주(公州) 계실곡(溪室谷)에 숨어서 가난한 가운데 학문을 닦았다. 50세 때 감역 벼슬을 받았으나 취임하지 않고 글로 여생을 마쳤다. 문장이 고상하고 깨끗하다. 『밀암문집(密庵文集)』 18권 9책이 자필본으로 남아 있다.

둘째, 송시연과는 3편이 모두 임정주의 형 임성주의 문집 편찬과 관련된 성리학 토론이다. 그 내용은 『녹문선생문집』 권22에 들어 있는 「존존감기(存存龜記)」가 명의 유학자 양계(梁溪) 고반룡(高攀龍)의 수양론의 영향을 받았으니 삭제하라는 송시연의 제안에 대해 임성주가 말한 ‘致良知’는 양명(陽明)의 주장과 다른 것이라 해명하고, 『녹문선생문집』의 이민보(李敏輔)의 서(序)와 임욱(任燾)의 발(跋)에 대한 송시연의 논평이 너무 간략하여 유감스럽게 여기고 있으며, 『녹문선생문집』에서 고반룡의 말을 인용한 권26의 「차미호신기음삼편재첩인족성심성잡영(次漢湖神氣吟三篇再疊因足成心性雜詠)」은 위대한 근원에 대해 논한 부분이 합치되어 취한 것인데 김상진(金相進)이 임성주를 양명의 일파로 몰고 가고 있다고 우려하는 내용이다. 이 편지의 내용들을 참조하면, 운호는 형 녹문이 고반룡의 수양론을 참조한 부분에 대해 문인들의 의견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녹문선생문집』에 그대로 실은 것을 보면 녹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여 그대로 실은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김희(金熹, 1729~1800)⁹⁾와의 서간은 3편이 모두 성리학 토론이다. 임정주는 한원진(韓元震)의 제자인 김희에게 그 스승의 심설(心說)에 문제가 있음을 조목조목 논하였고, 한원진의 인물성부동론(人物性不同論)은 심성을 하나로 보고 성범심부동론(聖凡心不同論)은 심성을 둘로 보았으니 문제라는 것이며, 이간(李柬)은 인물성(人物性)에서는 심성을 둘로 보고, 성범심(聖凡心)에서는 심성

9) 한국학중앙연구원(201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검색일자 2015. 3. 15.]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54061&cid=1592&categoryId=1592>>

김희(金熹, 1729~1800)는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선지(善之), 호는 근와(芹窩). 충청도 연산 출신이다. 1762년(영조 38)에 생원이 되고 1773년에 증광문과의 병과에 급제하여 1777년(정조 1) 초계어사(抄啓御史)에 선발되었다. 그 뒤 1779년 지평·규장각직각·이조좌랑·교리 등을 역임했다. 1780년 대사간·대사성 등을 거쳐 강원도관찰사·대사간·이조참의·대사헌·동지경연사·평시제조·이조참판·홍문관부제학·광주목사 등을 역임했으며, 1790년 형조판서가 되었다. 이어 예조판서·경기도관찰사를 거쳐 서흥부사(瑞興府使)를 역임했다. 이듬해 임경업(林慶業)의 실기(實紀)를 찬집했고, 이어 이조참판·함경도관찰사를 거쳐, 1793년 우의정에 올랐다. 판중추부사를 거친 뒤 영중추부사가 되고, 1795년과 1797년에 동지 겸 사은사로 청나라에 다녀온 뒤, 기로소에 들어갔다. 경학에 능해 경전장구(經傳章句)에 정조의 고문 역할을 했다. 인품이 청백해 사관들은 한사(寒士)와 같이 담소하라고 평했다. 편서로는 『사계연보(沙溪年譜)』가 있다. 시호는 효간(孝簡)이다.

을 하나로 본데 비해, 한원진은 인물성(人物性)에서는 심성을 하나로 보고, 성범심(聖凡心)에서는 심성을 둘로 보아 두 견해가 모순된다는 내용이다.

4) 임정주는 정조 12년(1788)에 그의 형인 임성주가 돌아가시자 바로 그해부터 『녹문선생문집』의 편찬과 관련된 유고를 수집하여 정리하고 초안의 작성을 진행하면서 조카들과는 실무를 진행하고, 문인 및 주변 사람들에게 의견을 들으면서 진행하였다. 그의 서간에서 『녹문선생문집』의 문집 편찬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5건이다.

송시연과는 문집의 편정과 위에서 언급한 고반룡과 관련된 글 및 서문과 발문 등을 논의하였다. 박운원에게는 문집의 편차와 관련하여 성설(性說)에 대해 달리 생각하는 점이 있으면 일일이 지적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족질 임노에게는 문집의 인쇄에 대해 걱정하였고, 족질 임묵에게도 유집을 편차하기 위해 유사(遺事)나 다른 문건들을 모은다는 내용을 친척들에게 알리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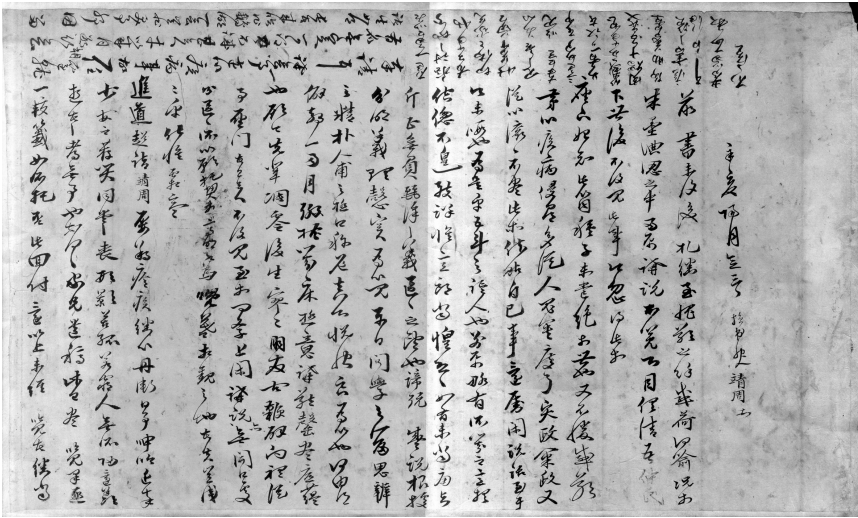
3. 자필 서간문의 분석

이 자필 서간문은 임정주가 그의 형 임성주의 문집 편찬과 관련하여 여러 사람과 상의하여 일을 진행하였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을 다룬 것이다. 『운호집』에 수록되지 않았으며 새로운 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밝힐 수 있는 글이다. 이 자필 서간문의 서지적 분석 및 내용 분석을 구체적으로 시도해 보고자 한다.

3.1 서지적 분석

이 자필 서간문은 임정주가 정조 15년(1791)에 청산현감(靑山縣監)으로 있을 때 그의 형인 임성주의 문집을 편찬하면서 여러 사람과 상의하여 일을 진행하였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을 다룬 것이다. 서간의 크기(세로 x 가로)는 34.2 x 57.8cm이다. 필첩 전체는 본문은 세로 20줄, 서간 위쪽 여백에 가로 3줄, 세로 15줄이고,

자필연도 1줄이다. 전체 글자 수는 본문 496자, 자필연도 15자이다. 상대방의 편지를 지칭하는 ‘서(書)’, ‘찰(札)’, 상대방의 풍부한 논설인 ‘성설(盛說)’, 상대방이 내용을 본다는 뜻의 ‘람(覽)’ 등의 앞에는 존경을 표시하기 위해 공격(空格)을 두고 있다(<그림 2> 참조).



<그림 2> 윤호 임정주의 자필 서간문 원문

윤호 임정주의 자필 서간문은 자신이 직접 쓴 원본이다. 이 서간문 글씨체의 특징은 안진경의 행초서에 바탕을 두고 부드러운면서도 운필 조절에 균형이 잡혀서 종획의 필세가 강함과 균셈이 들어 있고, 상하의 글씨의 이어짐이 운치가 있고 숙련되어 강하되 수려하고 생동감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를 몇 가지 사례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전형적인 안진경의 행초서체 글씨체인 ‘前(前)’, ‘五(五)’, ‘也(也)’, ‘義(義)’, ‘理(理)’ 자가 있고, 전형적인 안진경(顔眞卿)의 해서체(楷書體)의 필획의 규범을 벗어나지 않는 ‘札(札)’과 ‘荷(荷)’의 형태가 있다.

2) 운호가 독특한 운필법(運筆法)을 세련되게 구사한 글자들이 있다. 첫째, 초서에서 혼란이 올 수 있는 부수들의 획의 모양을 은연중에 달리하고 있는데, ‘後(後)’와 ‘從(從)’은 이 글자의 부수인 ‘彳’의 획을 ‘ㄷ’ 또는 ‘ㄷ’와 같이 아래쪽으로 가늘고 길면서도 세련되게 구사하고 있고, ‘澳(澳)’, ‘忍(忍)’, ‘滾(滾)’ 등의 글자의 부수인 ‘彳’의 획은 ‘ㄷ’와 같이 짧고 가늘게 표시하였으며, ‘講(講)’, ‘說(說)’ 등의 부수인 ‘言’의 획은 ‘ㄷ’과 같이 좌측 점을 찍고 사이를 두어 가로획은 좌측에서 획을 시작하는 듯하다가 바로 살짝 꺾어 내려 세로획을 짧게 마무리하고 있다. 둘째, 운호의 운필법 중에 또 하나의 특징은 책받침변의 파임을 둥글면서도 길게 하여 위의 글자를 싸안아 주는 모양의 과격의 글자가 있는데 ‘遑(遑)’이다. 셋째, 여러 세대 답습되면서 만들어진 듯한 독특한 서법의 글씨체가 나타나는데 ‘別(別)’, ‘所(所)’, ‘靜(靜)’, ‘麗(麗)’의 글자 등이 있다.

3) 초서의 연서법에서는 두 글자, 세 글자, 네 글자를 연결해 멋을 부리거나 또는 수려한 필법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들 연서된 글자체들에는 안진경의 초서 운필법(運筆法)의 특징과 비슷하지만 운호만의 독특한 초서 필법의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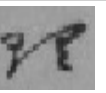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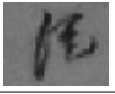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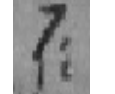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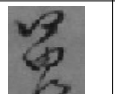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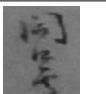
첫째, 운호가 두 글자를 연서하여 한 글자처럼 몇 부림의 글자체로 쓴 것으로는 ‘世也(世也)’, ‘此箇(此箇)’, ‘一任(一任)’, ‘問學(問學)’, ‘日事(日事)’ 등의 글자가 있는데, ‘世也(世也)’는 위아래의 균형이 중형과 좌우가 잘 균형을 잡고 있으면서도 생동감이 있고, ‘此箇(此箇)’는 위의 ‘차(此)’ 자를 작게 하고 아래의 ‘개(箇)’ 자를 크게 하여 마치 ‘개(箇)’ 자의 위에 왼쪽으로 무엇을 얹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으며, ‘一任(一任)’은 가장 한 글자 같은 자형으로 단순하게 표현하였다. ‘問學(問學)’은 ‘학(學)’의 글자가 마치 ‘문(問)’ 자의 우산을 쓰고 있는 듯한 형국으로 표현하였다. ‘日事(日事)’는 두 글자를 작게 조합하여 허함이 없이 묘하게 조화된 균정미를 갖추었다. 이외에도 운필한 글자가 그림처럼 수려한 것으로는 ‘可謂(可謂)’의 글자가 있다.

둘째, 세 글자를 연서하여 초서의 특징을 살리고 있는데, ‘得此於^ㄷ’^ㄷ, ‘五斗之^斗’^斗, ‘爲以也^也’^也, ‘何由得^得’^得, ‘開口處^處’^處 등이 있다. ‘得此於^ㄷ’^ㄷ는 세 글자의 비중을 같게 하되 왼쪽으로 가너린 필세를 주고받으면서도 마지막 ‘어(於)’자의 마무리 획을 가로로 길게 마무리하여 균정의미를 갖추었다. ‘五斗之^斗’^斗는 가운데 ‘두(斗)’자를 크게 하고 ‘오(五)’자와 ‘지(之)’자를 작게 하여 전체의 형세와 조화를 맞추었다. ‘爲以也^也’^也는 ‘위(爲以)’의 두 글자는 세로와 가로 비율이 잘 조화되었고, ‘야(也)’자는 가로로 길게 세로는 짧게 안으로 움크리고 있는 듯하게 써서 위의 두 글자를 안정되게 떠받드는 형세를 갖추고 있다. ‘何由得^得’^得은 몸을 뒤로 저치고 앞으로 걸어가는 듯한 형국으로 썼지만 불안하지 않은 균정미를 갖추었다. ‘開口處^處’^處는 위아래 글씨인 ‘개(開)’자와 ‘처(處)’자를 크게 하고 세로로 향하는 가운데 조금 작은 글씨인 ‘구(口)’자를 위치하여 같은 크기의 글자에서 나타나는 일상의 파격을 깨고 있다.

셋째, 네 글자를 연서한 것으로는 ‘有名無實^實’^實이 있다. 네 글자를 왼쪽과 중앙으로 연결해 주면서 성글고 긴밀한 형세 속에서 여유 있게 배분하고 있어 각각의 글자가 균정미가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운호 임정주 자필 서간문 글씨체의 특징을 종합하면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운호 임정주 자필 서간문 글씨체 특징의 사례

안진경 행초서체를 바탕으로 한 예					
임정주의 몇 부림 글자체의 예					
임정주의 몇 부림의 책바침 변 및 세습된 글자체의 예					
연서법 두 글자의 예					
연서법 세 글자의 예					

3.2 내용적 분석

운호 임정주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글을 남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형 녹문 임성주의 문집 편찬과 관계된 서간이 문집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자필 서간문은 그의 문집에 실려 있지 않다. 그는 정조 13년(1789)부터 정조 19년(1795)까지 청산현감(靑山縣監)으로 있으면서 7년간 그의 형 임성주의 『녹문선생문집』을 편찬하였고, 정조 19년(1795) 5월 이후에 자신이 만든 ‘임정주목 활자’로 26권, 부록 합 13책을 간행하였다.

이 자필 서간문에는 운호 임정주가 청산현감(1789~1795)으로 재직하던 정조 15년(1791) 녹문 임성주의 유고를 편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황과 저간의 사정이 들어 있다. 세부 내용의 전개 상 전문에 토를 붙여 <표 3>으로 소개하고, 해석의 전문을 <표 4>로 제시하며, 임의로 <표 5>와 같이 7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3> 운호 임정주의 자필 서간문 전문 및 토

1) 前書未復하고 後札繼至하니 愧歎之餘에 感荷何喩은 況於朱墨泮湲之中에 兩紙講說所
 閱에 心目俱淸하니 吾仲氏(任聖周)下世後로 不復見此事라가 今忽得此於座下하니 始知此箇
 種子未嘗絶於世也라 又不勝感歎이라//

2) 第以疾病侵尋하야 多從人鬼關¹⁰⁾度了하고 灾政權政이 又從以滾滾不盡하고 此等體
 貼¹¹⁾自己事還屬하야 閑說話至於今未暇也하니 爲是乎五斗之¹²⁾證人也라 別紙에 略有所對
 之言이나 想倥偬不遑致詳이라 惟言郎當惶恐惶恐이라 如有未當庸與斤正이면 無負麗澤之義
 를 區區之望也라//

3) 誦玩盛說하니 根據分明하고 義理懇實하야 爲以見示日하야 問學之富와 思辨之精이라
 朴人甫之極口稱道와 眞心悅服은 良爲以也라 何由得僻都하야 一兩月聯枕對床하야 極意講難
 하며 罄盡底蘊也오 顧今先輩凋零하고 後生寥寥하야 朋友間鞭辟向裡며 從事聖門者 已矣不復
 見하고 至於問學上閑講說도 亦無開口處하니 則區區所以願托契於亮明하야 而爲晚暮相親之
 地者 夫豈淺淺乎아 伏惟霜寒에 進道超詣아//

4) 靖周는 屢朔疹疾하고 繼以丹衛하야 日事呻吟타가 近幸少安한데 而荐哭同堂之喪하야
 形影苦孤하야 若窮人無所歸¹³⁾하니 還羨逝者之都無事也라 奈何奈何오//

5) 家兄遺稿는 計已盡覽하온데 畢逐一較籤을 如所託否아 此回付還하고 以上未經覽者는
 繼當奉請耳라//

6) 講會一事는 連以疾病事故로 一任遷就하야 有名無實하니 可謂不誠甚矣라 幸以來月朔
 朝에 行會하야 諸生이 如得長者來臨이면 非鵝湖¹⁴⁾一會나 豈非慶事耶아 因留遲一兩日하야
 以爲穩討之地면 則尤可幸也러니 切仰切仰이라//

7) 家兄狀草¹⁵⁾는 曾見之否아 別以奉呈하니 覽還如何오 其中에 如有可議者면 籤示幸甚이
 라 肉燭¹⁶⁾十五隻은 聊助暮置疾書之資耳라 自餘는 都留面敘하고 不宣이라//

辛亥(정조 15, 1791) 陽月 念三日 損弟 服人 任靖周頓

//: 임의로 나눈 단락의 표시임.

10) 귀관(鬼關): [불교] 저승으로 들어가는 문. 출몰귀관 [出沒鬼關] 저승의 문에 드나든다는 뜻으로, 죽었다 살았다 함을 이르는 말이다.

11) 체첩(體貼): 자세히 체득함. 자상하게 보살핌.

12) 5두(五斗): 5두미(五斗米). 현령(縣令)의 녹봉을 지칭함. 진(晉) 나라 도잠(陶潛)이 팽택영(彭澤令)이 된 지 80여 일 만에 연말(歲終)이 되어 군에서 독우(督郵)를 파견하여 팽택현에 이르자 아전들이 관복을 입고 뵈어야 한다고 하니, 도잠이 “내가 어찌 향리소배에게 허리를 굽힌단 말이냐” 하고, 인수(印綬)를 풀어 관직을 버리고 귀거래사(歸去來辭)를 읊으며 고향으로 돌아왔음(『晉書』 卷94).

<표 4> 운호 임정주의 자필 서간문 해석 전문

1) 앞서의 편지에 답장을 못한 채 나중의 편지가 잇달아 이르니 부끄럽고 한탄스런 나머지 감사하는 마음 어디다 비유하겠습니까? 더구나 주묵(朱墨)이 너저분한 가운데 두 차례 편지의 강론한 내용을 살펴보고서 마음과 눈이 함께 청신해졌으니, 우리 중형(仲氏)이 세상을 떠난 뒤로 다시 이런 일을 못 보다가 지금 갑자기 좌하에게서 보게 되었으니, 이제야 이런 종류의 씨앗이 일찌감치 세상에서 끊어지지 않음을 알게 되어 감탄스러움을 감당하지 못 하겠습니다.//

2) 다만 질병(疾病)이 점점 악화되어 이승과 저승을 넘나들면서 보낸 날이 많았고 재상(災傷)과 조적(糶糶)에 관한 행정이 따라서 거세게 다함이 없는데, 이런 등류를 세심하게 돌보며 자신의 일도 도리어 예측되게 하여 한가히 이야기하는 것을 지금껏 여가하지 못 했으니 이는 곧 5두(五斗)에 엮매인 증인(證人)이 된 것입니다. 별지(別紙)에 대략 대응한 말씀이 있었으나 바빠서 상세히 검토할 겨를이 없으신 줄 생각합니다. 언관과 낭청만은 너무 황공합니다. 만일 기용이 적합하지 않거나 근정(斤正)할 것이 있으면 학우로써 서로 학덕을 돕고 다듬는 의리를 저버리지 않으시기를 구구(區區)하게 바랍니다.//

3) 융성한 논설을 자세히 완미(玩味)하니 근거가 분명하고 의리가 각실(愷實)하여 날마다 학문의 넉넉함과 사변(思辨)의 정밀함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인보(朴人甫)가 온갖 말로 칭찬한 것과 진심으로 좋아하며 따른 것은 참으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 13) 若窮人無所歸의 뜻은 곤궁한 사람이 돌아갈 곳이 없다는 뜻이다. 『孟子』 만장 하에 “요임금이 장차 천하의 인심을 살피 제위(帝位)를 순(舜)에게 물려 주려 하셨지만 순은 부모에게 순(順)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원모(怨慕)하는 마음이 절박하여 곤궁한 사람이 돌아갈 데 없는 것처럼 여기셨다”는 부분을 인용한 것으로 여기서는 운호 자신의 건강과 잇달은 당내의 상적으로 그 박절한 심정을 비유한 것임.
- 14) 아호(鵝湖): 아호사(鵝湖寺)… 모임. 송의 순희(淳熙) 2년(1175)에 여조겸(呂祖謙)의 주선으로 주희(朱熹)와 육구연(陸九淵)이 신주(信州)의 아호사(鵝湖寺)에서 만나 학풍에 관하여 3일 동안 토론하였으나 끝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함. 당시 논변의 주제는 학문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육구연 형제는 사람의 마음에 내재한 이치를 밝혀 도덕적인 함양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주자는 옛 성현들의 경전을 두루 읽어 사물의 이치를 먼저 탐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일간의 아호지회(鵝湖之會)는 결렬되었음. 주희는 뒤에 그 내용을 요약하려고 하였는데, 육구연은 태간(太簡)하고 공소(空疏)하였다고 비판하고, 우선 본심을 밝혀야 함을 강조한 육구연은 주희를 지리(支離)하다고 비판하였음.
- 15) 가장초(家狀草): 가장초기(家狀草記). 가장은 자신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또는 조상의 행적에 관한 사사 기록을 말함.
- 16) 육촉(肉燭): 소의 기름으로 만든 초. 육초.

어떻게 하면 도성의 번두리에서 한두 달 함께 기숙하며 책상을 마주하여 마음껏 강론하고 변난(辨難)하며 마음속에 쌓아 지닌 재지(才智)와 식견(識見)을 모두 털어볼 수 있겠습니까? 현재를 돌이켜보면 선배는 연로하고 후생들은 적오[寥寥]하기만 하여, 친구 간에는 투철하게 탐구하거나 정미(精微)한 경지에 들어가 성인의 도를 전하는 사람을 다시 볼 수 없고, 학문상으로 조용히 강설(講說)하는데 이르러서도 입을 뿔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구하게 광명[光明]하고 견정(堅貞)한 이들과 계(契)를 의탁하여 만년에 서로 친하게 지내는 처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어찌 얕은 생각이라고 하겠습니까? 삼가 생각한 건대 서리가 내리는 차가운 계절에 도를 향하여 진취함에 조예가 뛰어난 경지에 이르렀습니까?//

4) 정주(靖周)는 여러 달 동안 병을 앓았고 계속해서 약으로 감싸며 날로 신음을 일삼다가 근자에 다행스럽게도 조금 편안하였는데, 당내[同堂]의 상사에 거듭 곡(哭)하느라 모습과 그림자가 고달프고 외로워 마치 곤궁한 사람이 돌아갈 곳이 없는듯하니 도리어 세상을 뜬 사람의 아무 일도 모르는 것이 부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요?//

5) 가형(家兄) 유고(遺稿)는 이미 다 보셨을 줄 짐작이 됩니다만 하나씩 하나씩 비교하면서 찌를 붙이기를 부탁드린 대로 해 주셨는지요? 이 인편에 되돌려 부쳐주시고 이전에 안 보신 부분은 잇달아 봐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6) 강회(講會)에 대한 일은 연달아 질병과 사고 때문에 끌려가는 대로 일임하다 보니 성의가 없음이 심하다고 할 만합니다. 다행히 다음 달 초하룻날 아침에 강회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제생(諸生)이 만일 장자(長者)가 와 주심을 얻게 된다면 아호사(鵝湖寺)에서의 한 차례 모임은 아니지만 어찌 경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하루나 이틀을 머물면서 온당하게 강토(講討)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면 더욱 다행이겠기에 간절히 바랍니다. //

7) 가형(家兄)의 가장초(家狀草)는 전에 보셨습니까? 별도로 올리오니 보시고 되돌려 주셨으면 합니다. 그 가운데 만일 의논할 곳이 있으면 찌를 붙여 보내주시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육축(肉燭) 15척(隻)은 어두울 때 글을 빨리 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대면하여 말씀드리려고 보류하고 이만 줄입니다.//

신해(辛亥: 정조 15, 1791)년 10월 23일 손제(損弟) 복인(服人) 임정주(任靖周)는 경의를 표합니다.

//: 임의로 나눈 단락의 표시임.

<표 5> 운호 임정주의 자필 서간문의 단락 구성

단락	핵심내용
1) 단락	임정주가 친구에게서 강설이 있는 서신을 받고 임성주의 죽음 이후에 처음으로 감동을 받음.
2) 단락	임정주의 질병이 악화되어 청산현감의 일이 많음을 밝히고 언관과 낭청의 일은 사양함.
3) 단락	임정주가 친구의 편지 안에 들어 있는 논설을 읽고 친구의 깊은 학문 연마를 부러워함.
4) 단락	임정주의 건강이 좋지 않고 당내의 상사가 많아 고달픈 처지를 알림.
5) 단락	임정주가 형의 유고의 편차 교정을 친구에게 맡겼는데 일부 돌려받고 다시 편차 교정을 청하는 내용임.
6) 단락	운호 임정주가 건강이 악화되어 강회를 하지 못하였는데 강회를 시행하려고 하는 내용임.
7) 단락	운호 임정주가 임성주의 행장 초안을 보았는지의 여부를 묻고 육축을 보내는 내용임.

1) 1단락은 임정주가 친구에게서 강설이 있는 서신을 받고 임성주의 죽음 이후에 처음으로 감동을 받는 내용이다.

이 단락에서 친구는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5단락과 6단락의 내용을 보아 임성주의 『녹문선생문집』의 편찬의 교정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다. 『녹문선생문집』의 편찬은 정조 12년(1788) 임성주가 죽고 난 뒤에 바로 시작되었다. 임정주의 문집인 『운호집』 권2 『여종질묵(與從姪默)』(戊申, 1788)에 보면, ‘… 遺集已始草本書役 家狀亦不可不汲汲草成 … 可收於文集者 亦一一考出 或送原本 或飜書以送 皆無妨此事 亦報於西湖麟蹄聖用諸處如何’라 하여 유집의 초본(草本)을 베껴 쓰는 작업을 벌써 시작했고, 가장초(家狀草)도 빨리 초안을 만들 것이라 했으며, 문집에 수록할 만한 것을 찾아서 일일이 고출하여 원본을 보내주거나 등사본을 보내주도록 여러 곳에 부탁하도록 하였다. 또한 『운호집』 권2 『여종질노(與從姪魯)』(甲寅, 1794)에 보면, ‘… 鹿門集 託宋姪時然金友相進 盡意刪節 而似不下十四五卷印役 … 天若延我數年之命 則若干所費 略留意鑄字之役 行且告訖 可以成吾之志 …’라 하여 『녹문선생문집』은 송시연과 김상진에게 부탁하여 산정하였고 인역(印役)은 14권에서 15권으로 추산하였다. 임정주는 활자를 만들어 간행사업을 마칠 수 있을까 걱정하는 내용을 조카 임노(任魯)에게 서신을 보낸 것인데, 후에 임정주는 임성주의 『녹문선생문집』을 원집 26권, 부록 합 13책

으로 인출하였다.¹⁷⁾ 이 글들을 참조하면 『녹문선생문집』의 편차와 관련 있는 인물은 조카 송시연(宋時然)과 친구 김상진(金相進)이다. 이 편지의 내용 중에는 좌하(座下)라든가, 편지 끝에 쓰인 손제(損弟)는 친구 사이에 사용하는 용어로 보아 편지는 친구 김상진에게 보내진 것으로 여겨진다. 김상진(金相進)은 본관은 김해(金海), 자는 사달(士達), 호는 탁계(濯溪)이다. 충청북도 보은 출신이다. 젊은 시절에는 홍명원(洪命元)에게 수학하다가 성장하여서는 김원행(金元行)과 송명흠(宋明欽)을 사사하였다. 영조 31년(1755) 생원시에 합격하였으나, 그 뒤 과거 때마다 뜻을 이루지 못하여 과거를 단념하고 계산에 은거하면서 『주자대전(朱子大全)』과 『주자어류(朱子語類)』에 심취하였다. 정조 15년(1791)에는 땅을 사서 의전택(義田宅)을 만들고, 또 1천 권의 책을 모아 묵장각(墨莊閣)을 설치한 뒤 문약(門約)과 종맹(宗盟) 등을 만들어서 문중자질들을 가르치면서 『예설잡지(禮說雜識)』, 『경전경의(經傳經義)』, 『미강어록(漢江語錄)』 등 많은 저술을 남겼으며, 실행체험을 신념으로 주자학연구에 일생을 바친 전형적인 선비였다. 저서로는 『탁계집(濯溪集)』 10권 5책이 있다.¹⁸⁾

2) 2단락은 임정주의 질병이 악화되어 청산현감의 일이 많음을 밝히고 언관과 낭청의 일은 사양하는 내용이다.

임정주는 청산현감이 되어 현감의 직무에 충실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정조 17년(1793) 5월 24일조를 보면, “이조·병조가 도신 이형원(李亨元)의 장계에 의거하여 치적과 진흙정사에 공이 있는 이들을 정조에게 상주하였을 때, … 그중 청산 현감이던 임정주(任靖周)에게 아마(兒馬)를 내리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하자 … 정조가 이에 윤희하고, 전교하기를, 임정주는 책을 끼고 다니던 시절에 그의 공부가 있음을 익히 알았었으니 의당 치적이 이와 같았을 것이다. 계방(桂房: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의 별칭. 세자를 모시고 호위

17) 강순애, “『윤지당유고』 편찬·간행과 목활자의 조성 및 서지적 특징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59집(2014), 51.

18) 한국학중앙연구원(201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검색일자 2015. 3. 2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52370&cid=46649&categoryId=46649>> 김상진(金相進).

하는 관청)의 옛 요속들을 모두 관례를 깨고 등용하여 옛 정의를 기념하였는데 이 사람만 유독 빠졌으니 특별히 한 자급을 가자하라”¹⁹⁾고 하였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보면, 임정주는 이조와 병조로부터 청산현감의 업무를 평가받으면서 아마(兒馬)의 선물을 받고, 정조의 배려로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의 옛 요속이어서 특별히 벼슬이 가자(加資)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기사는 임정주가 서간을 쓴 2년 후이니 그 전에 세자익위사에 근무했던 사람들을 등용할 때 임정주가 병으로 사양한 것과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3) 3단락은 임정주가 편지 안에 들어 있는 논설을 읽고 친구의 깊은 학문 연마를 부러워하는 내용이다.

임정주는 편지에 들어있는 김상진의 논설이 근거가 분명하고 의리가 각실(愨實)하여 날마다 학문의 너넉함과 사변(思辨)의 정밀함이 드러나게 된 것을 보고, 박인보(朴人甫; 박운원(朴胤源, 1734~1799)으로 추정됨)와 함께 모여 강론하고 변난(辨難)하며 마음속에 쌓아 지닌 재지(才智)와 식견(識見)을 모두 털어내 보기를 소망하고, 계(契)를 의탁하여 다시 만나기를 바라고 있다.

4) 4단락은 임정주의 건강이 좋지 않고 당내의 상사가 많아 고달픈 처지를 알리는 내용이다.

임정주는 이때 거듭되는 괴로로 여러 달 동안 병을 앓으며 지냈고, 거듭되는 상사(喪事)에 힘들어하며 세상을 떠난 사람을 오히려 부러워할 정도로 고달픈 삶의 연속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5) 5단락은 임정주가 형의 유고의 편차와 교정을 친구에게 맡겼는데 일부 돌려

19)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37卷, 正祖實錄 十七年(1793年) 5月 24日 乙卯條. “乙卯/湖西設賑, 自正月始設, 至是畢賑… 吏、兵曹據道臣李亨元狀啓, 啓言: “燕岐縣監黃運祚, 道臣以治績賑政之最爲優著, 置諸首褒, 合賜表裏. 定山縣監鄭亮采, 道臣雖置差等, 而自備穀五百石, 當陞敘. 靑山縣監任靖周, 恩津縣監尹行進, 藍浦縣監曹允遂, 俱有治績, 宜賜兒馬. 私賑邑舒川郡守李迪, 自備穀一千一百餘石, 宜賜熟馬. 公州判官李種徽, 自備穀一千六十餘石, 宜陞敘. 禮山縣監柳烜, 自備穀八百九十九石, 宜賜兒馬. 嘉善金宗喆, 願納租一千石, 宜實職除授. 願納三百石以下, 折衝趙明瑞等十人, 宜帖加成給.” 允之. 教曰: “黃運祚四品職調用, 任靖周, 慣知所存於挾冊之時. 宜乎治績之如此. 桂坊舊僚, 皆拔例記念, 而此人獨漏, 特加一資. 曹允遂陞敘.”

받고 남은 부분에 다시 편차와 교정을 청하는 내용이다.

이 부분의 내용은 『녹문선생문집』을 모두 읽으면서 교정을 하여 보완해 나가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 같다. 그 방식은 하나씩 하나씩 비교하면서 찌를 붙여나가는 것이다. 교정을 본 것은 인편에 되돌려 부쳐주고 이전에 안 본 부분은 잇달아 봐 주기를 청원하는 것이다.

임정주는 이때 『녹문선생문집』의 편차 원칙을 세우고, 원고를 돌려가며 상세하게 검토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녹문선생문집』의 편찬 원칙은 권수에 실린 범례(凡例)에 상세히 실려 있다.

첫째, 경례(經禮)와 차록(筭錄)이 섞여 있어 산만하여 분류할 수 없거나 영쇄(零碎)하여 별도로 묶을 수 없는 것은 모아서 일편(一編)으로 만들어 산록(散錄)이라 하였다(經禮筭錄之雜出 而散漫無所屬 及零碎而不可作編者 鳩爲一編 而名以散錄). 둘째, 녹문에게 있어서 시문(詩文)은 주요 저작이 아니고 편수도 많지 않았다. 그러므로 정서(程書)의 예에 따라 문집의 끝(末段)에 편차하였다(詩文於先生爲餘事 而篇數又不多 故依程書例 編於集之末段). 셋째, 대작(代作)은 문집 간행 예에 따라 수록하지 않았다(凡代人作從簡不錄). 넷째, 초설(初說)이 만년(晩年)에 개정된 것, 단지 삼읍절목(三邑節目)의 원편(原篇)에만 수록된 것 및 지명이 읍호(邑號)와 리호(里號)를 쓰지 않은 것은 모두 주석을 달아서 고열(考閱)토록 하였다(初說之晩年改定者 三邑節目之只錄原篇者 地名之不書邑號里號者 并略爲懸註以備考閱). 다섯째, 경의(經義), 어록(語錄), 강록(講錄), 강의(講義) 제편(諸編)은 년월(年月)의 선후로 순서를 삼아서 열람자가 한번 보고 그 작품의 저술 시기를 알 수 있게 하고, 기타 저작도 년조(年條)를 살필 수 있는 것은 각 편(編) 내에서 시대순으로 차례를 삼았으며, 편지는 인물별 다음에 시대순으로 배열하였다(經義語錄講錄講義等諸編 一以年月先後通作第次 使覽者一閱 便知其爲初晩之筆 其他著述之可尋年條者 各於編內依此第次 書牘則就各人亦依此第次). 여섯째 연보(年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행장(行狀)을 문집 끝의 부록에 실어 독자들이 녹문 선생의 전말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年譜姑未及成 故行狀附錄于集尾 使覽者知先生顛末).

이렇게 편찬된 『녹문선생문집』은 본집은 원집 26권, 부록 합 13책으로 권두에 이민보(李敏輔)의 서문과 범례(凡例), 총목(總目)이 있으며, 책마다 권수에 목록이 실려 있다. 권1-11의 서(書) 325편, 권12-16의 잡저(雜著) 8편, 권17의 「한천어록(寒泉語錄)」과 「옥류강록(玉溜講錄)」 2편, 권18의 「서연강의(書筵講義)」 1편, 권19의 「녹려잡지(鹿廬雜識)」와 「산록(散錄)」 2편, 권20의 잡저 13편, 서(序) 4편, 기(記) 4편, 권21의 제발(題跋) 14편, 논(論) 4편, 설(說) 10편, 권22의 명(銘) 7편, 잠(箴) 3편, 찬(贊) 1편, 축문 5편, 제문 10편, 권23-24에는 제문 14편, 애사 1편, 묘지명 18편, 묘표 1편, 묘갈 1편, 권25에는 행장 3편, 유사 2편, 공이(公移) 17편, 권26의 34제의 시가 실려 있으며, 부록에는 동생 임정주가 지은 행장이 실려 있고, 권미에는 종질(從姪) 임욱(任焄)이 지은 발문이 붙어 있다.

6) 6단락은 운호 임정주가 건강이 악화되어 강회를 하지 못하였는데 강회를 시행하려고 하는 내용이다. 운호 임정주는 자신의 심약해진 건강으로 인해 강회에 성의가 없게 되니 친구에게 청산현에 와서 11월 초하루의 강회를 이끌어 주고, 그로 인해 하루나 이틀을 머물면서 온당하게 강토(講討)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7) 7단락은 운호 임정주가 임성주의 행장 초안을 보았는지의 여부를 묻고 육축을 보내는 내용이다. 임정주는 녹문 임성주의 가장초(家狀草)를 친구에게 보내면서 보고 되돌려 줄 것을 부탁하고, 의논할 것은 찌를 붙여 보내주기를 바란다. 또 어두울 때 글을 빨리 보는데 도움이 되도록 육축(肉燭) 15척(隻)을 보내면서 편지를 마무리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 글은 임정주가 63세이던 정조 13년(1789)부터 69세인 정조 19년(1795)까지 청산(靑山) 현감으로 재직할 때 『녹문선생문집』의 편차와 관련된 내용에 기반하고 있다. 그는 과중한 업무와 악화된 건강으로 인해 국가에서 임명한 언관(言官)과 낭청(郎廳)의 일도 거절하고, 임성주 문집의 편차 및 교정에 관한 일을 김상진에게 부탁하였다. 그는 친구와 함께 학문을 연구하고 모임을 결성하고 싶은 소망을 잘 표현하였다. 그는 친구를 모임에 초대하면서 아직 교정을 보지 못한 일부 원고와 형의 행장 초안에 대한 편집과 교정을 부탁하고 있다.

4. 결 론

운호(雲湖) 임정주(任靖周)의 자필 서간문에 관한 연구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바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운호(雲湖) 임정주(任靖周, 1727~1796)의 자는 치공(稹恭), 호는 운호(雲湖)이다. 『운호집(雲湖集)』 권1-권2에 서(書) 45편에 수록된 인물들은 24명이다. 이들은 대부분 운호 임정주의 가족과 친척 및 친구들이며 기호학파(畿湖學派)의 주기학맥의 인물들이다. 이들 학파의 연원은 율곡(栗谷) 이이(李珥) →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 →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 도암(陶庵) 이재(李縉)로 이어지는 서인 학통의 도통을 이은 것이기도 하였다. 도암(陶庵) 이재(李縉)의 연원 중 운호 임정주와 서간을 교류한 사람들을 보면, 역천(櫟泉) 송명흠(宋明欽)과 그의 제자 추양(秋陽) 송계간(宋啓幹), 녹문(鹿門) 임성주(任聖周), 영서(潁西) 임노(任魯), 미호(溟湖) 김원행(金元行)의 제자 박윤원(朴胤源) 등이다.

2) 서간문 45편 중 편수가 많은 순서대로 보면, 김지행(金砥行) 6편, 송시연(宋時淵) 4편, 김희(金熹), 박윤원(朴胤源), 이상재(李象載), 송기정(宋基鼎), 임노(任魯) 등 5명은 각 3편, 송명흠(宋明欽), 김상진(金相進), 임육(任焞) 등 3명은 각 2편, 김상무(金相茂), 이민보(李敏輔), 송치연(宋致淵), 이홍재(李洪載), 송수연(宋守淵), 이광실(李光實), 이광주(李光胄), 김기서(金基胥), 송계간(宋啓幹), 임성주(任聖周), 임창주(任昌周), 임묵(任默), 임(任) 형제(이름은 모름), 임지상(任持常) 등 14명은 각 1편이다. 운호 임정주와 이들 간의 서간 교류의 주제는 하나의 주제를 다룬 것이 대부분이고, 간혹 두 개의 주제를 다룬 것도 있다. 이들을 몇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보면, 성리학 토론 21건, 학문 10건, 예(禮)와 관련하여 복제(服制) 3건, 제사(祭祀) 2건, 정려문(旌閭門) 건립 1건, 부인의 머리모양 1건 등 7건, 문집편찬과 관련하여 『녹문선생문집(鹿門先生文集)』의 편찬 5건, 송명흠의 문집편찬 1건, 송명흠의 문집편찬 1건으로 7건, 논의 2건의 총 47건이다. 성리학 토론 중 김지행, 송시연 및 김희와는 매우 중요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문집편찬과 관련해서는 송시연, 박윤원, 임노, 임묵과 의논한 내

용이 실려 있다.

3) 이 자필 서간문은 정조 15년(1791)에 임정주가 청산현감(靑山縣監)으로 있을 때 그의 형인 임성주의 문집을 편찬하면서 여러 사람과 상의하여 일을 진행하였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을 다룬 것이다. 이 서간문의 크기는 34.2 x 57.8cm이다. 전체 글자 수는 본문 511자이다. 상대방과 관련된 ‘서(書)’, ‘찰(札)’, ‘성설(盛說)’, ‘람(覽)’ 등의 앞에는 존경을 표시하기 위해 공격(空格)을 두고 있다.

이 서간문 글씨체의 특징은 첫째, 전형적인 안진경의 행초서체와 해서체(楷書體)의 필획의 규범을 벗어나지 않는 형태가 있다. 둘째, 운호가 독특한 운필법(運筆法)을 세련되게 휘두른 글자들이 있는데, 초서에서 혼란이 올 수 있는 한자 부수들의 획의 모양을 다르게 표현하거나, 책받침변 ‘ㄴ’ 과 같은 부수에서 파임을 과격적으로 표시하거나, 여러 세대에 걸쳐 답습된 글씨체를 독특한 서법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셋째, 운호는 초서의 연서법에 있어서 두 글자, 세 글자, 네 글자를 연결해가면서 수려하고 부드러운 초서체의 특징을 잘 살려내고 있다.

4) 이 자필 서간문에는 운호 임정주가 청산현감(1789~1795)으로 재직하던 정조 15년(1791) 녹문 임성주의 유고를 편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황과 저간의 사정이 들어 있는데, 내용전개상 7단락으로 나누었다. 1) 1단락은 임정주가 친구에게서 강설이 있는 서신을 받고 임성주의 죽음 이후에 처음으로 감동을 받는 내용이다. 이 단락에서 친구는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5단락과 6단락의 내용을 보아 임성주의 『녹문선생문집(鹿門先生文集)』의 편찬의 교정과 관련된 인물인 김상진(金相進)으로 추정하였으며, 그의 본관은 김해(金海), 자는 사달(士達), 호는 탁계(濯溪)이다. 2) 2단락은 임정주의 질병이 악화되어 청산현감의 일이 많음을 밝히고 언관과 낭청의 일은 사양하는 내용이다. 3) 3단락은 임정주가 편지 안에 들어 있는 논설을 읽고 친구 김상진(金相進)의 깊은 학문 연마를 부러워하며 박인보(朴人甫; 박윤원(朴胤源, 1734~1799)으로 추정됨)와 함께 모여 강론하기를 소망하고 계(契)를 의탁하여 다시 만나기를 바라고 있다. 4) 4단락은 임정주의 건강이 좋지 않고 당내의 상사가 많아 고달픈 처지를 알리는 내용이다. 5) 5단락은 임정주가 형의 유고의 편차교정을 친구에게 맡겼는데 일부

돌려받고 남은 부분에 다시 편차교정을 청하는 내용이다. 임정주는 이때 『녹문선생문집』의 편차 원칙을 세우고, 원고를 돌려가며 상세하게 검토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6) 6단락은 운호 임정주가 건강이 악화되어 강회를 하지 못하였는데 강회를 시행하려고 하는 내용이다. 7) 7단락은 운호 임정주가 임성주의 행장 초안을 보았는지의 여부를 묻고 육축을 보내는 내용이다. 서간문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 글은 임정주가 63세이던 정조 13년(1789)부터 69세인 정조 19년(1795)까지 청산(靑山) 현감으로 재직할 때 『녹문선생문집』의 편차와 관련된 내용에 기반하고 있다. 그는 과중한 업무와 악화된 건강으로 인해 국가에서 임명한 언관(言官)과 낭청(郎廳)의 일도 거절하고, 임성주 문집의 편차 및 교정에 관한 일을 김상진에게 부탁하였다. 그는 친구와 함께 학문을 연구하고 모임을 결성하고 싶은 소망을 잘 표현하였다. 그는 친구를 모임에 초대하면서 아직 교정을 보지 못한 일부 원고와 형의 행장 초안에 대한 편집과 교정을 부탁하고 있다.

<참고문헌>

- 강순애. “任允摯堂의 送序文 『拜送仲氏南歸序』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58집(2014. 6). 91-118.
- 강순애. “『윤지당유고』 편찬·간행과 목활자의 조성 및 서지적 특징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59집(2014. 9). 43-64.
- 金炫. “雲湖 任靖周의 理氣心性論.” 『東洋哲學研究』 제14집(1993). 207-223.
- 任敬周. 『청천자고(靑川子稿)』 3卷 1冊. 정조 18년(1794).
- 任聖周. 『녹문선생문집(鹿門先生文集)』 26卷, 附錄, 合13冊. 정조 19년(1795).
- 任允摯堂. 『윤지당유고(允摯堂遺稿)』 2권 1책. 정조 20년(1796).
- 任適. 『노은집(老隱集)』 4卷, 附錄, 合2冊. 정조 18년(1794).
- 鄭炳連. “녹문 임성주의 생애와 그 학술 경향.” 『퇴계학보』 101권(1999). 75-134.
- 『朝鮮王朝實錄』 37卷, 正祖實錄 十七年(1793年) 5月 24日 乙卯條.

네이버지식백과. [검색일자 2015. 3. 10.]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EF%A4%8A%E7%A0%A5%E8%A1%8C&sm=top_hyt&fbm=0&ie=utf8> 김지행(金砥行, 1716~1774).

디지털진천문화대전. [검색일자 2015. 3. 10.]

<http://jincheon.grandculture.net/Contents?local=jincheon&dataType=01&contents_id=GC02700665> 임노(任魯, 1755~1828).

용인시(2008). 디지털용인문화대전. [검색일자 2015. 3. 15.]

<http://yongin.grandculture.net/Contents/Index?contents_id=GC00900852&local=yongin> 이민보(李敏輔, 1720~1799).

한국학중앙연구원(201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검색일자 2015. 3. 15.]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30631>> 송계간(宋啓幹)

한국학중앙연구원(201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검색일자 2015. 3. 15.]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21018> 박윤원(朴胤源, 1734~1799).

한국학중앙연구원(201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검색일자 2015. 3. 15.]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30808> 송명흠(宋明欽, 1705~1768).

한국학중앙연구원(201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검색일자 2015. 3. 15.]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54061&cid=1592&categoryId=1592>> 김희(金熹, 1729~1800).

한국학중앙연구원(201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검색일자 2015. 3. 2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52370&cid=46649&categoryId=46649>> 김상진(金相進).

